

통영 어르신들 손주 생겼다…진돗개·비글의 ‘환상 재롱’

중앙일보 수정 2023-04-08 09:27:38

펫 톡톡 : ‘인생 사진 찍어드립니다’ 2탄

독자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내 새끼’에 얹힌 사연을 보내 주세요. 중앙일보 펫토그래퍼가 달려갑니다. 평생 간직할 순간을 찍어 액자에 담아드립니다.

사연 보낼 곳: photostory@joongang.co.kr



‘안녕하세요.

경남 통영에서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특별한 검둥이 진돗개 두 마리와 비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락하단 걸 아는지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향해 절대 짓지 않는 영특한 개들입니다. 어르신들과 반려견들의 특별한 만남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은데 펫 토크에서 관심 가져주실 수 있을까요.

추환희 드림.’



짧은 사연에 궁금증이 더 생겼습니다. 어르신들과 반려견,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서울에서 통영까지는 꽤 먼 거리이니 사전에 신청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연을 보내 주신 추환희씨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몹시 바쁜 듯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됐고, 주인공들을 만날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봄 비가 오락가락하던 3월 어느 날, 통영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어르신 돌봄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개 2마리가 낮선 그림자를 보고 짖어 댁니다. 환희씨가 사연에서

이야기한 진돗개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없다면 잔잔한 통영 앞바다 만큼이나 센터 주위는 평온합니다.

마침 환희씨가 외부에서 일을 마치고 급하게 돌아오고, 남편 이태현씨가 슬그머니 나와 녀석들을 달랠니다. 다시 센터는 고요해졌고, 환희씨 부부와 마침내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Q. 이곳에서 돌봄 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서울 남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경기도 용인에서 살다가 남편이 은퇴하면서 이곳으로 왔어요. 사실 통영은 제 고향이에요. 저는 그동안 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등의 일을 했었는데, 고향 땅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열고 인생 2막을 시작한 셈이죠.



하루

Q. 반려견들은 어떻게 이곳에 왔나요?

A. “저는 사실 개를 너무 싫어했어요. 무섭기도 했고요. 어딜 갔을 때 개가 있으면 치워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개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센터 일까지 이렇게 바쁘는데...”

환희씨의 답변을 남편 태현씨가 가로채면서 뒷이야기를 보탬니다.

A. “2021년 여름날, 오전에 센터 어르신들을 모시러 다니던 중 한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를 봤어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나도 한 마리 구해주세요’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어르신이 ‘거제도에 생후 두 달 된 버려진 개 두 마리가 있다는데 키워 보실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눈 질끈 감고 아내에겐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곧장 거제도로 차를 몰았죠. 두유 2박스를 주고 두 녀석을 데려왔는데, 그중 한 마리는 동네 이장에게 보냈고, 나머지가 이 녀석 ‘하루’예요”

태현씨가 아내와 상의도 없이 용감하게(?) 강아지를 입양한 까닭이 궁금했습니다.

Q. “통영에 오셔서 아버님께 무슨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A. “외로웠나 봐요. 저도 나름 서울에 살 때는 한 회사를 꾸리면서 대표도 하고 했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통영에 내려와 아내가 시작한 요양 시설 일을 돕다 보니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친구들과 만나는 기회도 적어졌어요. 거리까지 멀어지니 서울에 갈 일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 좋은 바다를 매일 보고 살아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우울하기까지 했어요”

당시 태현씨의 외로운 마음을 파고 들어 온 것이 아마도 반려견 하루였나 봅니다.

이후 하루와 함께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 하는 태현씨의 모습을 본 환희씨도 하루와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산이

“이참에 한 마리 더 있으면 좋겠는데?”

태현씨는 하루를 데려왔던 그 집에 전화를 걸어 “혹시 새끼가 또 있나요?”라고 물었고, 때마침 강아지가 또 생겼다며 데려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허락을 받은 뒤 데려왔습니다. 그게 귀가 축 처진 이 녀석 ‘산이’입니다. 둘째입니다.



마이키

세 번째 비글 ‘마이키’는 환희씨 부부 아들이 키우던 녀석입니다. 부산에서 직장을 다닌 아들은 혼자 살면서 마이키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해외 근무를 하게 되면서 녀석을 부모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두 마리도 버거웠던 환희씨 부부는 처음에 단호히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출국을 했고, 막상 분리 불안 증상을 보이는 녀석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식구가 됐습니다.

이 세 녀석들과 요양 센터 어르신들과의 생활은 어떨까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덩치가 꽤 큰 녀석들이 말썽을 부리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다행히 녀석들은 순둥순둥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리와~이리와~’ 하며 녀석들을 손자 손녀 대하듯 부릅니다. 셋 중에 제일 착한 산이는 어르신들 사이를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하루는 어르신들의 손길에 배를 보이며 드러누워 재롱을 부립니다. 마이키는 손을 씻고 계신 한 할머니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환희씨 부부와 직원들은 이 녀석들 덕분에 센터에 온 어르신들이 웃을 일이 많아져
덩달아 즐겁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무서워해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들에게 익숙해지고, 오며 가며 애정과 믿음이 쌓였고, 그렇게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사랑이 넘쳐서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센터에서 받은 간식꺼리를 이 녀석들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러다 녀석들이 먹어서 안되는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주실 때는 ‘안 돼요! 어머니!’ 환희씨의 외침이 센터에 울려 퍼지기도 한답니다.



센터 실내에서 이런 저런 사진을 찍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날씨가 조금 좋아져 촬영 장소를 야외로 옮겼습니다. 부부와 세 녀석이 함께한 가족사진도 찍어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온 녀석들이 신이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참을 뛰고 난 뒤에야 힘이 좀 빠졌는지 진정이 됩니다. 그제야 겨우 사진 한 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우당탕탕’ 했던 순간이 사진 속 부부의 표정에서 고스란히 보입니다. 이 모습조차 행복해 보입니다.

태현씨가 가족만의 숨겨진 산책로를 소개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지나니 통영 바다가 펼쳐집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니는 길입니다. 이날 이곳에서 찍은 사진은 훗날 가족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언제가 외국에 있는 아들이 태현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빠가 통영에 내려와서 제일 성공한 건 하루를 데려다 키운 거고, 제일 실패한 건 하루를 키워서 엄마한테 소홀한 거다”라고...

그런데 "엄마한테 소홀한 거다", 이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루, 산이, 마이키 덕분에 어르신들도 웃을 일이 많아져 좋고, 태현씨도 은퇴 후 삶의 우울함을 극복해서 좋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환희씨는 더더욱 행복해 졌으니 말입니다.



나사기름, 참기름, 식용기름으로 직접에 쓰지않아 (그냥 그냥 그냥 캐제스 나사기름처럼 그냥으로 사용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로 몸을 싸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향했어요.
- 24시간 운영하는 대형 병원을 미리 알아보고 핸드폰에 저장해 뒀어요.



※유박비료는 식물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비료예요. 비료의 주원료로 쓰이는 피마자에는 '리신'이란 맹독 성분이 들어있는데 독성이 청산가리의 6000배 정도라고 해요. 고소한 냄새가 나고 사료와 비슷한 모양이라 반려동물에게 특히 더 위험해요.